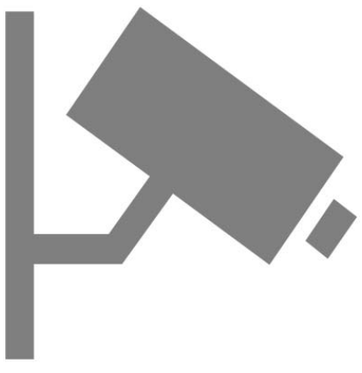
긴급때 현장 5곳 영상 실시간 전송…시민안전 똑똑히 지킨다



스마트시티 안전서비스 가동
광주시관제센터 4500대 영상
경찰·소방·시 상황실 연결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공공기능을 네트워크화 하는 스마트시티를 통해 광주시가 좀 더 '똑똑한 도시'로 재탄생한다.

광주시는 5일 "폐쇄회로(CC)TV를 활용한 시민안전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에 선정돼 받은 국비 6억원과 시비 6억원 등 총 12억원을 투입, '스마트시티 5대 시민안전서비스' 구축을 완료했다.

'스마트시티 5대 시민안전서비스'는 광주시에 설치된 4500여 대의 CCTV 영상정보를 광주지방경찰청(112센터)과 소방안전본부 상황실(119상황실), 시 재난상황실 등으로 실시간 연결해 각종 범죄, 재난, 구조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범죄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이를 확인하고 경찰과 소방 등 해당 관정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광주시는 공모 선정 이후 계약자 선정과 사업 추진을 거쳐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시범 운영했으며 이달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앞으로 이 시스템을 활용해 ▲112긴급영상 지원서비스 ▲경찰관 긴급 출동 지원서비스 ▲119긴급 출동 지원서비스 ▲재난 상황 긴급 대응 지원서비스 ▲사회적 약자 지원서비스 등을 추진한다.

112 긴급영상 지원서비스가 시행되면 CCTV통합관제센터 전문관제 요원은 범죄 의심 현장을 포착할 경우 실시간으로 영상을 전송하게 된다. 또 경찰청 상황실에서는 112 신고 전화를 받으면 CCTV통합관제센터에 GPS 위치영상을 요청해 신고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된 CCTV 5개소의 영상을 즉각 전송받을 수 있다.

경찰관 긴급출동 지원서비스는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받은 사진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재전송하는 서비스로 범인 검거 효과가 예상된다.

119 긴급출동 서비스는 화재 발생 시 소방차 등이 가는 길목의 교통 상황과 주변 상황을 담은 CCTV 영상을 제공해 불법주·정차 등으로 길이 막혀 현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경우를 피할 수 있다.

재난상황 긴급 대응 지원서비스는 재난현장 영상을 광주시 재난종합상황실에 제공, 분야별 재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사회적약자 지원서비스는 치매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본인 또는 가족이 갖고 있는 신고용 단말기 위치정보를 토대로 인근 CCTV 영상을 경찰에 전송하는 내용이다.

광주시는 스마트시티 시민안전서비스로 치안확보, 방재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다.

김영선 광주시 스마트시티과장은 "범죄 추적이나 소방·방재 활동은 1분 1초라도 더 아껴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도시 곳곳에 설치된 CCTV를 기반으로 영상 공유 기술을 접목해 시민안전 인프라를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동구, 업무보고 '자유토론' 방식 진행 눈길

간부공무원 30여명 워크숍

광주시 동구가 기존 업무보고 방식을 벗어나 자유롭게 토론하는 새로운 '간부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선보였다.

동구는 5일 "구종천 부구청장 주재로 구청 화상회의실에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 30여명이 참석한 역량강화 워크숍을 지난 2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기존에 진행돼 온 업무보고 방식에서 벗어나 각 부서 현안업무를 부서장이 발표하고 이에 대해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연일 지속되는 폭염 대응대책 추진, 일자리 창출 방안,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재정확보 방안,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전통시장 및 상가지역 주차난해소 문제 등 다양한 구정현안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구는 워크숍에서 정리된 의견을 빠른 시일 내에 현장에 적용하는 한편 중요현안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및 광주시와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시 동구는 지난 2일 구청 화상회의실에서 구종천 부구청장 주재로 5급 이상 간부공무원 30여명이 참석한 역량강화 워크숍을 열었다. 〈동구 제공〉

市 긴급폭염안전대책본부 특보 해제때까지 지속 운영

광주시는 5일 "주말과 휴일에도 폭염 대응에 총력전을 펼쳤다"고 밝혔다.

광주시를 비롯한 5개 자치구는 각각 긴급폭염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155명이 휴일 비상근무를 했다.

먼저 광주시는 폭염대응 총괄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며 전반적인 대응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점검했다. 5개 자치구는 점검반을 편성, 관내 무더위쉼터 등을 방문해 냉방기 작동상태 등 불편사항을 점검했다.

앞서 광주시는 자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무더위쉼터 한 곳당 전국 최고수준인 30만원을 지원했다.

살수 차량도 도심 간선도로와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가동됐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폭염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휴일을 포함해 긴급폭염안전대책본부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향토사단인 31사단 화생방지원대는 자치구, 소방본부 살수 차량 등과 함께 도심 살수작업에 동참했다.

민간부문 참여도 계속됐다. 지원1동 자율방재단(단장 강금수)은 지난 4일 오후 동구문화센터 앞, 명문사우나 사거리 등에서 얼음물 500여 개 나눔행사를 진행하며 폭염대비 홍보물을 배부했다. 북구 자율방재단은 5일 오후 우산공원에서 미숫가루 및 생수 나눔행사를 실시하고, 폭염시 시민행동요령 등을 홍보했다.

정종제 행정부시장은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돼 폭염에 대응하고 있다"며 "어려운 여건에도 폭염대응에 함께 하고 있는 31사단장병과 광주시민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그린카진흥원, 부품업체 25개사 지원

제작·마케팅 등 27일까지 모집

광주시 출연기관인 광주그린카진흥원은 5일 "'2018년 자동차 부품업체 역량 강화 지원사업' 대상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광주그린카진흥원은 이번 역량 강화사업을 통해 4개 분야에서 모두 25개 업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자동차 부품기업 맞춤형 지원' 분야로 시제품제작, 인증지원, 시험평가, 특허분석, 공정개선 등 최대 1000만원씩 15개사를 지원한다.

또 '타지역 협력네트워크 공동개발 지원' 분야에서 타 지역 기업과 공동으로 개발과 납품을 연계하는 구매 조건부 지원으로 기업당 최대 2000만원씩 2개사를 선정한다.

'국내외 마케팅 지원' 분야에서 전시회 참가비를 기업당 최대 240만원씩 5개사를 모집한다.

'자동차 관련 품질인증 컨설팅 지원' 분야에서 기업당 최대 500만원씩 3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그린카진흥원 누리집(www.gigca.or.kr) 사업 공고를 통해 오는 8월 27일까지 지원기업을 모집한다.

광주그린카진흥원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21억원을 투입해 품질인증 컨설팅과 시제품제작, 사업화 지원, 전기차 관련 틈새시장 진출 등 모두 70개 사 130여 건을 지원했다.

그 결과 200여억원의 매출 증대와 20여억원의 비용 절감, 76명의 신규 고용 등의 성과를 거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에 맞는 복지는…복지재단 20일까지 수요조사

의견제안 이메일 접수
연구과제 개발 세미나도

광주복지재단은 오는 8월 20일까지 2019년도 연구과제 선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한다. 이는 시민과 복지현장 등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한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서다.

수요조사를 위한 의견제안 참여는 광주시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기관·단체, 학계, 현장전문가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의견제안 내용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기관단체 등의 사업분야와 관련하여 연구의 필요성이 있는 과제, 광주복지재단에서 수행돼야 할 연구과제 등이다.

제안분야는 노인, 장애인, 저소득, 자활, 지역사회, 사회공헌 등이다.

제안방법은 연구과제명, 제안배경(필요성), 제안내용, 기대효과 등을 재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제안서에 적어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이메일 주소 : flower7922@hanmail.net

재단은 올해는 특별히 연구과제 선정을 위한 세미나도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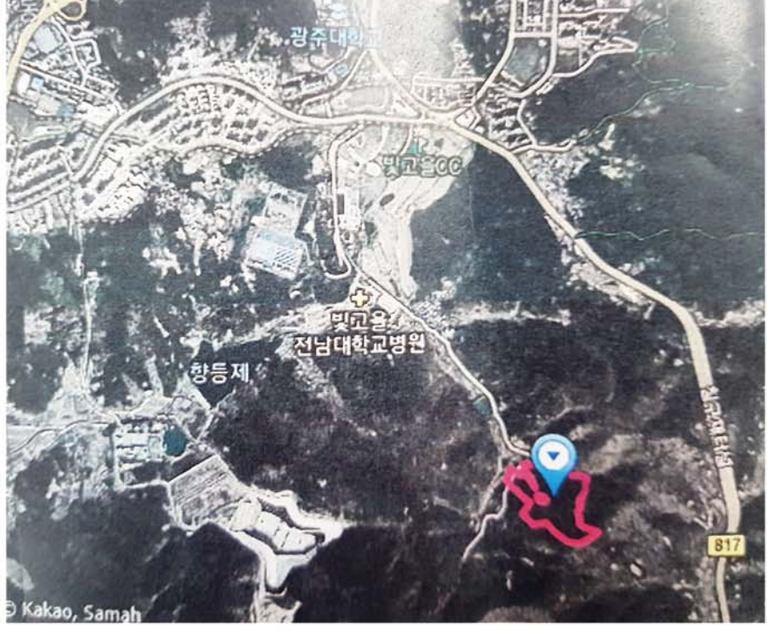
제안된 연구과제는 먼저 재단과 외부 복지현장전문가 등이 함께 선별, 검토하고 연구과제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최종적으로 광주복지재단 연구과제선정위원회에서 연구과제별 추진방향과 자문을 거쳐 선정한다.

광주복지재단 장현 대표이사는"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2019년 재단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것은 시민들의 복지서비스 수요에 맞는 맞춤형 사회복지정책 실현을 위한 첫 걸음이다"면서 "앞으로도 복지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개발에 시민과 현장의 소리를 적극 반영해 광주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복지재단은 광주시민들의 보편적 복지실현과 사회복지 강화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공공과 민간의 복지전달체계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정책연구과제 개발을 위한 토론회, 세미나, 시민복지자문단 원탁회의, 페이스북 등을 열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덕남동 임야, 투자가치 좋습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550평
  공유지분,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 (200평 이상)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맹지도 15만원에 매매 되고 있음(산64-21번지)**
- **매매 - 평당 17만원**
  (일시불 완불시 조정가능)
  문의. 010-6834-7400